

# 수능 원서접수 내일부터

## 내달 5일까지 도내 고교·6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가 21일 시작된다. 1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도내 고등학교와 6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수능 원서를 접수한다.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하면 된다. 졸업자 중 원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거나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가능하다. 또한 전북에 주소를 둔 검정고시 합격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하면 된다. 수험생은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 시스템(www.mysat.re.kr)에서 응시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응시수수료를

가상계좌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사전 입력 시스템 사용자도 반드시 접수처를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접수증을 받아야 된다. 온라인 사전 입력 시스템 사용을 희망하지 않는 수험생은 현장 접수처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다. 원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리접수는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다. 접수처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은 수험생은 사진 2매와 응시수수료를 준비해야 한다.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졸업자 중 주소지 이전 등으로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경

우에는 학력인증 서류와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증·경증 시각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 등이 시험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구비하고 접수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도내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은 △전주교육지원청(전주·완주·진안·무주) △군산교육지원청(군산) △익산교육지원청(익산) △정읍교육지원청(정읍·고창) △남원교육지원청(남원·장수·임실·순창) △김제교육지원청(김제·부안) 등 6곳이다.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북교육청(239-3335), 전주(270-6062), 군산(450-2656), 익산(850-8830), 정읍(530-3021), 남원(620-7831), 김제(540-2571)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전북 직업계고 실전 면접 프로젝트 기동

# 이력서·자소서에 면접까지 '원스톱'

## 내달 5일까지 도내 직업계고 18곳 400여명 대상 진행 전문 강사 학교로 찾아가 교육... 성공 취업 설계 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다음달 5일까지 도내 직업계고 18개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전 면접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지원 기회를 제공해 성공적인 취업 설계를 돕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르면 전문 강사가 신청 학교를 직접 찾아가 하루 4시간, 10~15명 소규모 그룹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구직 서류 작성부터 실전 면접 및 이미지 메이킹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실전



대응력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기업 맞춤형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실습 △중소(경)기업 인식 개선 교육 △실전면접 및 이미지

메이킹 교육 등이다. 실전면접 및 이미지 메이킹 교육에서는 면접 질문 분석은 물론 면접 매너 및 태도, 명확한 자기소개 표현을 위한 말하기 습관 기르기, 학생별 취약점을 분석한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이번 교육에서 습득한 결과물을 오는 9월 9일 열리는 '전북 직업계고 취업박람회'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문형심 청의인재교육과장은 "실전 면접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에 기반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돕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AI 기반 우주용 복합소재 분야 학연 특화과정 운영

## 전주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협약 체결... 특화연구 분야 공동연구 등 추진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19일 본관 경기전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오상록, 이하 KIST)와 AI 기반 우주용 복합소재 분야 학연 특화과정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진배 총장, 오상록 원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특화연구 분야 공동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수행 △연구·교육 인프라 공동 활용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세미나 및 심포지엄 공동 개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KIST 연구자와 전주대 교원, 지역기업이 연계한 CarbonAI 실용화 융합연구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학연 특화과정 운영을 위해 양 기관에서 공동연구기금을 마련하고, 학연 특화과정 참여 대학원생에게는 KIST가 연구장려금을, 전주대가 정규학기 등록금을 지원한다.



전주대학교는 19일 본관 경기전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AI 기반 우주용 복합소재 분야 학연 특화과정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은 박진배 전주대 총장 등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박진배 총장은 "전주대의 학문적 기반과 KIST의 우수한 연구인력 인프라가 결합해 전주대가 지역혁신거점대학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록 원장은 "AI 기반 우주용 복합

소재 분야는 차세대 국가 산업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며 "학연 특화과정은 교육과 연구가 하나로 움직이는 산·학·연 협력 모델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베트남서 글로벌 창업 성과 쏟아내

### 메가어스엑스포·유니브스타 글로벌 창업캠프 성료

### 메디엔리서치 등과 계약 체결... 40건 구매의향서 확보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2025 메가어스 엑스포(MEGA-US EXPO)'와 '2025 유니브스타(UNIV.STAR) 글로벌 창업캠프'를 열었다고 밝혔다. 19일 전북대에 따르면 올해로 4회째를 맞은 메가어스 엑스포는 전북대 창업지원단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해 2022년부터 매년 규모를 확대해왔다. 올해는 전국 10개 창업지원대학과 5개 창조경제혁신센터, 8개 테크노파크가 공동 주관했다. 전북대 창업지원단은 창업중심대학 사업을 통해 권역 내 창업 7년 이내 기업 15개사와 스포츠창업지원사업 선정기업 3개사 등 18개사를 지원해 총

141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메디엔리서치와 STVIKO 등이 5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 40건의 구매의향서(총 195만 달러 상당)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벤처스타(한·베 창업기업 글로벌 IR 데모데이)에서는 전북대 지원기업 알트레코가 글로벌 VC와 2건의 투자계약을 체결하며 주목을 받았다. 행사 기간 베트남 사이공이노베이션 허브(SI-HUB)와 국내 13개 대학 간 대학발 창업기업 협력 및 학생 창업 활성화를 위한 MOU도 체결돼 한·베 양국의 지속 가능한 창업 및 인재 교류 기반을 다졌다. /장은성 기자

# 베트남에 첨단 축산·수의 실습실 문 열다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최근 베트남 빈(Vinh) 대학에 첨단 축산·수의학 실습실을 개소했다. 이는 한국연구재단의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대학이 개발도상국 대학들의 교육과 연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체적으로는 빈 대학의 수산양식·축산학과에서 축산 분야를 분리하고, 수의학 교육과정을 추가해 수의·축산학부로 개편해 베트남 전체의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전북대학교가 최근 베트남 빈(Vinh) 대학에 첨단 축산·수의학 실습실을 개소했다. 개소식에서 김남수 사업단장, 응우옌 응옥 히엔 이사회 의장 등 대학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해 실습실 개소를 축하했다.

앞서 지난 8월 6일 빈 대학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김남수 사업단장(수대대 교수)과 응우옌 응옥 히엔 당 위원장 겸 이사회 의장 등 대학 주요 보직자, 교수진, 학생, 축산·수의 분야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실습실 개소를 축하했다. 이번 개소한 실습실에는 △기초 축산·수의학 실습실 △수의외과 실습실 △수의학 분자진단 실습실 등이 들어섰다. 베트남 빈 대학 관계자는 "이번 실습실 개소는 전북대와의 국제협력력이 성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

## 빈 대학서 개소식... 전북대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 일환 기초 축산·수의학, 수의외과, 분자진단 실습실 등 들어서

라며 "이를 통해 교육 커리큘럼의 내실화는 물론 교수법 개선, 연구 활성화 측면에서도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김남수 단장은 "축산·수의학 실습실 개소는 단순한 시설 지원을 넘어, 현지 교수진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자립형 교육과 연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빈 대학이 베트남 축산·수의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1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2025년 MZ 청렴 서포터스' 발대식이 열린 가운데,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하고 있다.

# 청렴한 전북교육, 젊은 교직원들이 조성한다

## 전북교육청, 2025 MZ 청렴 서포터스 발대식... 24명 구성

## 정기회의·온라인 아이디어 교환 등 세대 공감형 활동 펼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9일 5층 회의실에서 '2025년 MZ 청렴 서포터스'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청렴에 관심 있는 MZ세대 교직원 24명으로 구성된 서포터스는 MZ세대의 시각에서 청렴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청렴문화를 실천·확산하기 위한 자발적 참여 조직이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지난 7월 16~23일 공모를 통해 지원자 신청을 받아 적극성·전문성·과감력·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선발했다. 선정된 24명의 MZ 청렴 서포터스는 오는 12월까지 정기회의와 온라인 아이디어 교환을 병행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세대 공감형 청

렴활동 참여 △갑질 근절 및 소통문화 확산 캠페인 제작 △청렴 캠페인 및 홍보 활동 △불합리한 제도·관행 발굴 및 개선 제안 등이다. 특히 서포터스 활동에는 콘텐츠 제작, 회의공간, 청렴 키트 등이 지원되며, 우수 활동 팀에는 교육감 표창과 총 110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청렴은 교육 행정의 근간"이라며 "서포터스 활동은 전북교육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전북노무사회, 청렴 조직문화 확산 '맞손'

### 안심노무사 상담 등 협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9일 5층 회의실에서 조직 내 갑질 근절 및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전북노무사회-전북노무사회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갑질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1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조직 내 갑질 근절 및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전북노무사회와 업무협약(MOU) 체결식이 열린 가운데,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과 전북노무사회 신용순 회장이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협약 내용은 △조직 내 갑질 근절 및 청렴문화 확산 노력 △안심 노무사 허브(SI-HUB)와 국내 13개 대학 간 대학발 창업기업 협력 및 학생 창업 활성화를 위한 MOU도 체결돼 한·베 양국의 지속 가능한 창업 및 인재 교류 기반을 다졌다. /장은성 기자

방교육 및 홍보 활동 등 다양한 공동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유정기 부교육감은 "양 기관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조직 내 갑질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상호 존중과 신뢰가 살아있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용순 회장은 "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과 존엄이 지켜지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안심 상담으로 피해 예방과 치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